

5·18 사적지 옛 적십자병원 민간매각에 사라질 위기

서남학원 공개매각 절차 진행...5월단체 "광주시가 직접 인수 나서야" 광주시는 예산 부족 이유 사실상 포기...중요 유산 보존대책 시급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인 '구 광주적십자병원'이 민간에 매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 등이 직접 인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지 면적만 2843㎡(860평) 규모인 '구 광주적십자병원'은 광주 천변 일대에 남은 마지막 노르자위 땅으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될 경우 민간 업체에서 상업용 건물 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매입 작업 자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5·18 관련 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광주시 동구, 서남학원 재단 등에 따르면 서남학원재단은 1995년 광주시 동구 불로동에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구 광주적십자병원(대지 2843㎡, 건물 3777.98㎡)을 인수해 서남대병원으로 운영하던 중 적자 등으로 2014년부터 폐쇄했다.

서남학원은 이후 1350억원의 채무를 떠안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구 광주적십자병원도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재산매각 승인을 받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5명으로 구성된 서남학원 청산인 이사회는 공개 매각을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저입찰가는 건물과 토지, 집기 일체를 포함해 80억~9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남학원측은 오는 30일 청산인 이사회를 다시 열어 공개 입찰 일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며, 9월 초 일간지에 공개입찰 공고를 내고 1개월의 신청기간을 거친 뒤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광주적십자병원은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서울택시기사인 송강호와 광주택시기사인 유해진이 처음 만난 장소로, 영화 속에서는 당시 택시운전자들이 부상자를 태우고 드나들던 병원으로 표현됐다.

실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적십자병원은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하고 시민들의 목숨을 살려낸 곳이다. 1980년 5월 18일 금남로에서 계엄군의 폭력으로 최초 사망자인 고(故) 김경철 열사가 처음 이송된 병원으로도 유명하다. 5·18민주화운동 이후에도 부상자 치료에 적극 나서서 등 적십자 정신을 이어갔으며, 광주시는 1998년 1월 사적지 제11호로 지정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중요 사적지가 민간에 매입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광주시 동구는 자체 매입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무산됐으며, 최근 광주시에 매입이 나서달라는 협조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 민간인권영화국 5·18 선양과 관계자는 "구 광주적십자병원을 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인 옛 광주적십자병원(동구 불로동)이 2014년 운영난으로 폐쇄된 이후 민간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낙찰을 받더라도 한달내에 낙찰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탓에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적십자병원의 매각소식이 알려지면서 5·18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적지 전문가들은 "옛 전남도청과 전일

빌딩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 5·18 사적지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주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원형 보존의 당위성을 중앙 정부에 알리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구 광주적십자병원은 5·18사적지로 5·18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라며 "광주시

는 재단과 단체들의 여론을 수렴해 5·18사적지 보존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구 광주적십자병원은 1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광주시가 인수해 역사체험을 통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애인 현금인출 후견인 동행 법원 "우체국 규정 수정해야"

정신장애인이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경우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한다는 우체국 은행의 규정을 수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진철)는 28일 장애인 18명이 "장애인 차별행위를 중지해달라"며 국가(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100만 원 이상 거래할 경우 동의서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을 동행하게 한 것을 중지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위별로 일일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각 50만원과 기간별 지연이자금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환청 시달린 50대 주유소 방화

장성경찰은 28일 "환청에 시달리다 주유소에 불을 지른 A(45)씨를 현주견조물 방화 혐의로 불집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50분께 장성군 삼계면의 한 주유소에 찾아가 주유기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주유기 일부가 탔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5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A씨는 "내가 살려면 불을 질러야 한다"는 환청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제2 윤창호법 시행 두 달...광주·전남 음주운전 '확 줄었네'

지난해보다 48%·21% 씩 감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두 달 간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사상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광주 448건, 전남

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광주 863건·전남 1207건)보다 각각 48.1%, 21.4% 줄었다. 광주의 음주 교통사고는 40건으로 전년 동기(106건) 대비 절반 남게 감소했다. 전남도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4건) 대비 21.6% 줄어들었다.

사상자수도 감소세다. 광주의 경우 최근 두 달 간 음주 사고로 인해 1명이 숨지고 72명이 다쳐 사상자가 전년 동기(사망 1명·부상 193명) 대비 62.9% 줄었다. 전남 역시 사망 1명·부상 1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 6명·부상 227명에 비해 31.8% 감소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 시민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잔의 술로도 위험할 수 있으니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클럽 붕괴 사고' 공동대표 2명 구속

경찰, 수사 상황 발표
1명은 구속영장 기각
27명의 사상자(사망 2·부상 25)를 낸 광주 클럽붕괴 사고의 주요 피의자 일부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은 28일 광주 상무지구 클럽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클럽 공동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공동대표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들 공동대표는 클럽 내부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구속된 대표 2명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기각된 1명은 구조물 불법 증축과 시설 운영에 관여한 정

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현장 검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거쳐 전·현직 클럽 공동대표와 불법 시공업자 등 11명을 피의자로 검거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공동대표 1명과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피의자의 신병처리 방향은 향후 수사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클럽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 기초의원 등 수십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지난달 27일 새벽 2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5명 다쳤다. 부상자 중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 등 외국인 10명이 포함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돌에 묻은 유전자...차량털이범 '딱 걸렸네'

광주북부경찰은 28일 주차된 차량 창문을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 박모(53)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1시에 광주시 북구 동림동의 한 도로에 주

차된 이모(29)씨의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벽돌 크기의 돌로 깨고 안에 있던 현금 4만원과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지난해 9월 출소해 범부

보호복지공단 임시 숙소에서 거주하던 박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차량 운전석 위에 놓인 지갑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남겨진 돌에 묻은 유전자(DNA) 정보를 분석해 박씨를 붙잡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만취 선장 잠들어 배 '뱅글뱅글'

○...진도 앞 바다에서 만취한 채 잠이 들어 제자리에서 배를 뱅글 뱅글 운행한 40대 선장이 경찰서행.

○...28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 40분께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레이더에 선장 A(40)씨가 운행하는 어선 A호(5.62t)가 진도군 하조도 앞 해상에서 제자리를 돌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선장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잠이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의 배로 긴급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깨워도 제대 일어나지 않았다. 겨우 깨워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만취해 호흡 미약으로 측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설명.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칼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062)531-3530 H.010-9229-3530

MODERN (트윈스틸) 시공문의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